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이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

문미영[†]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4년 2월 23일 접수: 2024년 2월 28일 수정: 2024년 2월 28일 채택)

The effect of Empowerment and Job Burnout on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Mi-Young Moon[†]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Received February 23, 2024; Revised February 28, 2024; Accepted February 28, 2024)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이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총 2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heffe,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파워먼트와 감염관리 수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파워먼트가 감염관리 수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14.8%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감염관리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반영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감염관리, 간호사, 예방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by general hospital nurses' empowerment and job burnout. The subjects collected data from September 15 to October 31, 2023 from a total of 210 nurses at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D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heff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empowerment and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nd empowerment was analyz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with 14.8% of explanatory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programs and policies to efficiently perform infection control that can improve the empowerment of nurses.

Keywords : Empowerment, Job Burnout, Infection Control, Nurses, Preventi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mmy@joongbu.ac.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은 입원당시 환자의 감염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입원 후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의료행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감염을 말한다(Korean Society for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2017).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환자에게는 입원기간의 연장 및 사망을 야기시킨다[1]. 특히, 병원은 감염질환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므로 환자와 접촉이 가장 많은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 정도는 감염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2]. 감염관리 수행이란 감염관련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방적인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감염전파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하며[감염관리간호사회, 2012], 이는 표준주의, 손위생, 호흡기 감염예방 준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포함한다[3].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감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5].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효능감을 생성하여 무력감을 감소시킴으로서 업무에서의 보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6]. 간호학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건강증진을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과정' [7]으로 정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병원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를 향상시키는 임파워먼트가 요구된다[8]. 관련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았으며[9],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응급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다[10].

직무소진이란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과도한 업무량이 주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 고갈상태를

말한다[11]. 직무소진이 높은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환자를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12]. 이에, 간호사 업무 수행에 포함되는 감염관리 수행능력도 저하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감염질환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을 관리하여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고 감염관리 관련 직무소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13].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에서 간호사가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를 위한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3년 9월15일 ~ 2023년 10월 31일까지 D시에 소재한 2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절한 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G power

3.1 software를 이용한 결과,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 효과크기(r).15 (중간), 예측변인 8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는 160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자의 탈락율을 고려한 220명으로 선정되었다.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10명(4.5%)을 제외한 210명(95.6%)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근무부서, 학력, CRE 환자 간호 시 두려움 유무, 감염관리 수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임파워먼트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Ku [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u[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 이며, 본 연구에서는 .93 이었다.

2.3.3. 직무소진

본 연구에서 직무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Na [1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6문항중 2개의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Na[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1 이며,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2.3.4. 감염관리 수행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Kim[16]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2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수행한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5이며,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2.4. 자료표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9월 1일 ~ 2023년 10월 31일까지 수집하였다. 일개 도시에 소재한 2개 종합병원에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재한 2개 종합병원의 관리자를 통하여 연구 협조를 받았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연구대상자는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자료 하였다. 설명 내용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일부 문항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의 자의에 따라서 설문지 작성을 그만 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감염관리 수행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과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이 176명(83.8%)이었고, 연령은 22-29세 110명(52.4%), 30-39세 76명(36.2%), 40-49세 19명(9.0%), 50세 이상이 5명(2.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Empowerment, Job Burnout and Infection Control Behavior (N=210)

Characteristics	Range	N(%)	Empowerment		Job Burnout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4(16.2)	2.77±.27	1.94 (.053)	2.96±.32	1.34 (.181)	2.98±.42	1.56 (.098)
	Female	176(83.8)	2.93±.46		3.10±.59		3.01±.39	
Age	22-29 ^a	110(52.4)	2.91±.43	5.35 (.001) (a,b,c<d)	2.99±.55	2.23 (.085)	3.25±.10	1.42 (.440)
	30-39 ^b	76(36.2)	2.90±.42		3.17±.59		3.14±.05	
	40-49 ^c	19(9.0)	2.72±.43		3.27±.51		2.95±.18	
	Over 50 ^d	5(2.4)	3.58±.03		3.06±.34		3.09±.98	
Working department	Ward	155(73.8)	2.92±.44	0.45 (.651)	3.13±.57	2.07 (.039)	2.85±.74	0.90 (.721)
	Intensive care unit	55(26.2)	2.88±.44		2.95±.53		3.08±.15	
Academic background	Associate degree	52(24.8)	2.88±.41	0.10 (.901)	3.19±.47	2.91 (.056)	2.97±.84	1.24 (.292)
	Bachelor's degree	152(72.4)	2.91±.44		3.03±.59		3.01±.21	
	over Master's degree	6(2.9)	2.94±.73		3.43±.20		3.12±.57	
CRE patient care fear	No	132(62.9)	2.90±.43	-0.50 (.613)	3.16±.54	2.51 (.013)	2.83±.58	-0.28 (.121)
	Yes	78(37.1)	2.93±.45		2.95±.57		2.92±.62	
Cause of difficulty in Infection Control Behavior	A lack of knowledge ^a	66(31.4)	2.87±.45	3.19 (.024) (b<d)	2.94±.43	5.95 (.001) (d<b)	2.92±.56	0.34 (.732)
	Be overworked ^b	93(44.3)	2.87±.42		3.26±.65		2.84±.59	
	A lack of resources ^c	26(12.4)	2.90±.35		2.97±.39		3.09±.48	
	A lack of education ^d	25(11.9)	3.16±.49		2.91±.49		3.11±.50	

는 병동근무가 155명(73.8%)이었고, 학력은 대졸 152명(72.4%), 전문대졸 52명(24.8%), 대학원 이상이 6명(2.9%) 순으로 나타났다. CRE 환자 간호 시 두려움 유무는 '없음'이 132명(62.9%)이었고,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의 원인에서는 '업무과다' 93명(44.3%), '지식부족' 66명(31.4%), '자원부족' 26명(12.4%), '교육부족'이 25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연령(F=5.352, $p < .001$),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의 원인(F=3.199, $p = .02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에서는 50

세 이상의 대상자가 20-29세, 30-39세, 40-49세보다 임파워먼트가 높았고,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의 원인에서는 '교육부족'이 '업무과다'에 비해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직무소진은 근무부서($t = 2.074$, $p = .039$), CRE 환자 간호 시 두려움 유무($t = 2.513$, $p = .013$),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의 원인($F = 5.958$,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의 원인에서 '업무과다'가 '교육부족'에 비해 직무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2. Correlation Empowerment, Job Burnout and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N=210)

Variables	Mean±SD	Obtained range	Range
Empowerment	2.91±0.44	1.94~4.00	1-4
Job Burnout	3.08±0.56	1.44~4.88	1-5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3.22±0.43	1.25~4.00	1-4

Table 3. Correlation Empowerment, Job Burnout and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N=210)

Variables	Empowerment	Job Burnout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r(p)	r(p)	r(p)
Empowerment	1		
Job Burnout	-.15(.023)	1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16(.016)	-.01(.801)	1

3.1.2.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의 정도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4점 만점에 평균 2.91±0.44점이었고, 직무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3.08±0.5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1.3.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r=-.157$, $p=.023$)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임파워먼트와 감염관리 수행($r=.16$, $p=.016$)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은 낮았으며, 감염관리 수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1.4. 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 학력, CRE 환자 간호 시 두려움 및 임파워먼트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 변수는 감염관리 수행을 14.8% 정도로 유의하게 설명되었다($F=5.012$, $p<.001$). 독립변수 중 감염관리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파워먼트($\beta=.195$, $p=.00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별($\beta=.186$, $p=.006$), 학력($\beta=.141$, $p=.038$), CRE 환자 간호 시 두려움($\beta=-.274$,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3.2. 고찰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에서 간호사가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연령($F=5.352$, $p<.001$)과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이($F=3.199$, $p=.024$) 가장 높았고 수행 어려움 원인은 교육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업무 자신감을 형성하는 권한에 해당한다[17]. 50세 이상의 높은 연령대에서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난 것은 Oh & Chung의 연구[18]와 같은 결과로 많은 경력에서 형성된 위기대처능력과 업무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상자들은 감염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9]에서는 어려움 유발 요소로 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역량 부족과 감염관리담당 인력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Health Control Performance (N=210)

Variable	B	β	t	p
Constant	.641		0.83	.406
Gender	.481	.186	2.77	.006
Age	-.022	-.017	-0.25	.801
Working department	-.048	-.022	-0.32	.744
Academic background	.282	.141	2.09	.038
CRE patient care fear	-.542	-.274	-4.06	.000
Empowerment	.421	.195	2.92	.004
Job Burnout	-.014	-.008	-0.11	.907
R2=.148 Adj R2=.118 F=5.01 p<.001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가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교육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직무소진은 근무부서($t=2.074, p=.039$)와 CRE 환자 간호 시 두려움 유무($t=2.513, p=.013$),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의 원인($F=5.95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부서의 직무소진은 병동 근무 간호사의 직무소진이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의 연구[20]와 유사한 결과로 격리병동의 간호사들은 소수의 제한된 환자만 감시하지만 일반병동의 간호사들은 모든 환자들이 COVID-19와 같은 잠재 감염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환자 분류와 통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CRE 환자와 같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환자는 간호사 본인의 감염위험과 간호사가 질병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압박감[21]이 심리적 소진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염관리 수행의 어려움 원인에서는 ‘업무과다’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간호업무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직무스트레스를 높이고 피로도를 높인다[22]. 장시간 누적된 피로도는 심리적 소진을 가속 시키므로[23] 직무소진을 감소 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평균은 4점 만점에 2.91 ± 0.44 점으로 5점 만점에 3.06점[24]의 결과를 보인 Baek 등의 연구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대학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대상자의 권한, 직무, 근무 인원 수 등의 근무환경 차이가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병원의 규모에 따른 임파워먼트를 대단위로 측정된 연구가 있으나[25] 국내에서는 수행된 적이 없으므로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3.08 ± 0.56 점, 감염관리 수행은 4점 만점에 3.22 ± 0.43 점으로 선행연구에서 직무소진 2.98 ± 0.64 점[26], 감염관리 수행 3.22점[27]으로 나온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들 연구는 각각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감염관리 수행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r=-.157, p=.023$)은 음의 상관관계, 임파워먼트와 감염관리 수행($r=.16, p=.016$)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임파워먼트($\beta=.195, p=.004$)는 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28]의 연구에

서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직무소진과 스트레스가 낮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며 Boo등[2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등이 높은 대상자가 임파워먼트가 높고, 임파워먼트가 높았던 사람이 표준주의 수행력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30]. 임파워먼트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내포하고 있고 간호사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의 가장 핵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직무대상자이다 [6]. 그러나 이들의 직무소진이 높아지면 감염관리 수행률이 낮아지고 의료관련 감염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12].

따라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여 직무소진을 낮추고 감염관리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 및 감염관리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에서 간호사가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임파워먼트는 연령과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 요인 중 ‘교육 부족’에서 가장 높았다. 직무소진은 근무부서와 CRE 환자 간호 시 두려움에서 가장 컸고, 감염관리 수행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업무과다’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은 음의 상관관계, 임파워먼트와 감염관리 수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염관리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파워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간호전략을 개발한다면 직무소진을 낮추고 완전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감염관리 수행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파워먼트 상승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간호전략 구성 요소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J. Y. Park, C. H. Woo, S. Y. Lee, J. E. Oh, "Factors Influencing the Infection Control Practice of Clinical Nurses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3 pp. 121-129, (2018).
2. M. S. S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owerment,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 2304-2314, (2013).
3. S. Y. Jeong, K. M. Kim, "Influencing Factors on Hand Hygiene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Descriptive Survey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36 pp. 159-164, (2016).
4. J. M. Lee, Y. K. Yang, "Factors Affecting Infection Control Practic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7, No.6 pp. 137-148, (2023).
5. J. H. Kim, K. H. Lim,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4 pp. 477-486, (2023).
6. W. W. Park, "Empowerment: Its Meaning and Application", *Korean Management Review*, Vol.26, No.1 pp. 115-138, (1997).
7. A. Maglacas, "Health for all: Nursing's Role", *Nursing Outlook*, Vol.36, No.2 pp. 66-71, (1988).
8. S. O. Yoo, S. Y. Lee, S. O. Han, N. S. Chang, Y. O. Kim, J. Y. Hu, Y. H. Yom, "Empowerment,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2, No.3 pp. 406-414, (2006).

9. S. K. Park, *Empowerment of Operating Room Nurses and Its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 and Performances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5).
10. J. M. Yoon, M. H. Su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by Emergency Department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6, No.4 pp. 412-420, (2009).
11. B. H. Stamm, "The Concise ProQOL Manual (2nd ed.)", Available From http://www.proqol.org/uploads/ProQOL_Concise_2ndEd_12-2010.pdf. (accessed Feb., 01, 2024)
12. H. M. Jang, J. Y. Park, Y. J. Choi, S. W. Park, H. N. Lim, "Effect of General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Burnout 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2, No.3 pp. 239-250, (2016).
13. M. Bradley, P. Chahar, "Burnout of Healthcare Providers during COVID-19", *Cleveland Clinic Journal of Medicine*, pp. 1-3, (2020).
14. B. D. KU, *(The)Effects to Transformation Leadership and Paternalistic Leadership on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1999).
15. Y. J. Na,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Oldenburg Burnout Inventory(OLBI)*,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3).
16. B. Y. Kim, *The factors influencing CRE infection control in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6).
17. K. W. Thomas, B. A. Velthouse,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5, No.4 pp. 666-681, (1990).
18. E. H. Oh, B. Y. Chung,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7, No.4 pp. 391-401, (2011).
19. S. Y. Jeong, O. S. Kim, J. H. Choi, S. J. Lee, "Infection Control Tasks, Difficulties, and Educational Needs of Infection Control Practitioner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3 pp. 331-362, (2018).
20. Y. J. Park, K. S. Cha, K. L. Lee,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Clinical Nurses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A Focus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Infection Stress, and Occupational Stres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5, No.3 pp. 11-23, (2021).
21. J. Y. Ah, *The Impact of knowledge of CRE Infection Control, Time Pressure, and Infection Control Organizational Culture on Performance of CRE Infection Control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23).
22. S. H. Jun, M. H. Lee, M. J. Choi, "COVID-19 Infection Control-related Fatigue, Job Stress, and Burnout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Vol.28, No.1 pp. 16-25, (2021).
23. S. Y. Yun, S. V. Ahn, "Correlation between COVID-19 and Nurses' Job Stress and Burnou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Vol.2 pp. 202-218, (2022).
24. E. B. Baek, S. H. Bae, "Relationship between a University Hospital Nurses' Structural Empowerment and Quality of Nursing Work Lif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7, No.2 pp. 159-166, (2022).

25. H. K. S. Laschinger, J. Almost, D. Tuer-Hodes, "Workplace Empowerment and Magnet Hospital Characteristics: Making the Link",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33, No.7/8 pp. 410-422, (2003).
26. J. S. Kang, J. Y. Lim,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on Job Stress and Burnou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1 pp. 263-273, (2015).
27. M. K. Sim, "Knowledge, Awareness, Safety-Climate and Performance of Standard Precautions for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mong Nurses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1 pp. 425-435, (2019).
28. J. M. Kim,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 Empowerment, Job Stress and Burnout of Femal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6, No.1 pp. 177-199, (2009).
29. J. M. Boo, S. Y. Kweon, "Child Care Teachers Perceptions of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on Child Care Teachers Empower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6, No.2 pp. 23-48, (2009).
30. M. R. Jung, "Effects of Empowerment and regarding Standard Precautions for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in Healthcare Workers on Performan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 243-250, (2018).